



2일(화)
순창서 51번 환자 진료

5일(금)
보건당국
광주 자가격리 대상 결정

6일(현충일)
새벽 5시 필리핀 출국
오후 8시 자가격리 문자

7일(일)
당국, 뒤늦게 출국금지
오후 7시 인천공항 귀국

8일(월)
오전 9시 자가격리에서
일상격리로 바뀌



5월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서
14번 환자에 노출

31~ 6월 6일
대학교 기숙사·식당 등서
자유롭게 생활

7일(일)
복지부 우연히 명단 발견
지자체에 이송 협조 요청

보건당국 자가격리 분류
당사자 "통보 못 받았다"

접촉한 친구 등 3명 격리
대학 기숙사·식당 등에
고막채운기·발열기 설치

전남 청년인구 15년 동안 14만명 줄었다

전남발전연구원 분석

지난해 말 현재 전남도내 거주하는 15세에서 29세의 청년층 인구가 지난 2000년에 비해 무려 14만3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도 40% 이상 급감했다.

각계 전문가들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위해서는 청년 일자리, 교육, 복지, 문화 등을 융복합하면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발전연구원은 8일 '생명전남 85호' 기획특집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을 위한 제안'을 출간하고 각각 16명이 대담 형식으로 진단한 전남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미스매치 해소방안, 전남 청년 문화육구 증진을 위한 지역문화 활용방안, 전남 청년 복지 활성화 방안, 전남 청년 지원 협업체계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기획특집에 따르면 전남 청년층 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수의 감소율이 지나치게 높고, 청년층 가운데 15~29세 계층이 더 급격하게 감소했다. 지난 2000년 15~29세 인구는 40만8000명에서 2014년 26만5000명으로, 30~39세 인구는 29만6000명에서 19만8000명으로 각각 줄었다.

15~29세와 30~39세 취업자 수 역시 각각 15만2000명에서 8만9000명, 21만7000명에서 14만7000명으로 41.4%, 32.3%의 감소폭을 보였다.

전남발전연구원은 이번 전문가 대담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로 '전남도 청년종합계획안'을 작성했으며, 대담 결과를 전남도에 전달해 현재 수립중인 '전남도 청년발전 종합계획'과 '전남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너진 방역체계... 격리자 거리 활보

허술한 초동대처에 자치단체간 공조 시스템도 미흡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광주·전남 주민 불안감 확산

관련기사 2·3·4·5·8면

정부와 보건당국, 자치단체의 부실한 방역 체계 및 허술한 격리 대상자 관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허술한 초동대처와 미흡한 자치단체간 공조 시스템 등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순창 모 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의사 <광주일보 6월 8일 보도>의 경우 보건당국이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에 뒤늦게 포함하는 바람에 해외 출국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가격리 대상자'인 20대 여대생도 아무런 제재 없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대학 기숙사에 머무른 것으로 밝혀져 보건 당국에 대한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

8일 광주 동구보건소와 전남 A대학교 등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인 대학생 B씨(여·서울)는 지난 7일 재학중인 대학에서 과제물 준비차 광주 터미널에 도착한 뒤 광주 동구보건소 직원에 의해 서울 강서보건소로 이송됐다.

B씨는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B씨는 하지만 이송 직전까지 자신이 자가격리 대상자인 줄도 모른 채 대학교 기숙사와 강의실, 식당 등을 자유

메르스 현황 (전국 8일 20시 현재)

감염자 87명(전일대비 +23)
사망자 6명(+1)
감염의심자 ... 1632명(+128)
격리자 2508명(+147)
격리해제자 583명(+23)
퇴원자 1명

롭게 오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강서보건소는 지난 7일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정보시스템(PHIS)에서 B씨의 명단을 우연히 발견한 뒤 광주시와 대학 소재지 보건소 등에 이송협조요청을 의뢰해 B씨를 이송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과 지자체간 메르스 환자에 대한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바이러스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대상자가 학생들이 대거 모여 사는 기숙사에서 수일동안 기거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해 방역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반증했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확진을 받은 격리 환자와 접촉했거나 두통 등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B씨는 이날까지 특별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대학교 측은 B씨와 접촉한 친구 등 3



마스크 쓴 대한민국

메르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전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접수 창구 직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외래 환자의 접수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명을 기숙사에서 별도로 격리조치한 뒤 발열기와 고막채운기 등을 기숙사·식당 등에 설치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조치된 의사가 최근 아무런 제재 없이 해외에 나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심환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도 많다.

의사 C씨는 지난 5일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결정된 다음날인 6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향했다. 보건당국이 메르스 통합관리전선상에 자가격리 대상자인 C씨의 인적사항을 올린 뒤 출국금지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출국 다음날인 지난 7일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바람에 C씨의 출국을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형·김형호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전남 격리 대상자 33명

첫 10대 환자...환자 수 세계 2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8일 한꺼번에 23명이나 늘어 87명이 됐다. 처음으로 10대 환자가 발생했으며 순창에 이어 부산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와 환자 발견 지역이 전국으로 퍼졌다.

특히 삼성서울병원과 관련된 환자가 34명으로 급증해 이 병원을 통한 메르스 확산 저지에 보건당국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거처가 이름이 공개된 병원은 5곳이 늘어 모두 29곳이 됐다. 메르스 확진자가 87명으로 늘어나면서

한국은 아랍에미리트(76명)보다 많은 환자가 발생해 사우디아라비아(1026명)에 이어 메르스 2위 발병 국가라는 오명을 썼다. 추가 환자 중 65~81번 환자 17명은 지난달 27~29일에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35)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서울병원 감염자 중에서는 10대인 67번(16) 환자도 포함됐다. 국내에서 10대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오후 8시 현재 광주·전남의 메르스 격리 대상자는 33명(광주 18명·전남 15명)이지만 확진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방뉴스

국민 요정 손연재 출전
광주 유니버시아드 D-24
UNIVERSIADE GWANGJU 2015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2015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6월 8일(월)~19일(금)
문의: (062) 605-1115

15th 가슴으로 하나되는 아리따운 여정

2015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4일(일)

종 목 10km / 5km
참 가 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 념 품 기능성 마라톤 티셔츠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www.pinkcampaign.com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AMOREPACIFIC CORPORATION 한국유방건강재단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청, KBS광주방송총국, 광주MBC, kbc광주방송, 광주일보, 전남일보,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협찬: 해라, 아리따움, 르까프, 55CHU